

기고

교권을 바로 세우자

하영철
미래로학교 교육도우미 대표

교권 침해 사례의 급증으로 학교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최근 4년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5배 이상 급증하고,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도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지역은 교권 침해 사례가 줄어드는 반면, 광주는 3년 사이에 25배 증가했다. 2010년 19건에서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으로, 지난해엔 2010년에 비해 25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광주의 교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행 2건, 성희롱 3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10건, 폭언·욕설 213건, 수업진행 방해 175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으로 교권보호법안을 만들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심리치료, 학부모 거부 시 처벌, 피해 교원 상담 지원, 학교출입 절차 학교규칙 기재 등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 교권 보호 법안 6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을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권 침해 사례의 급증을 놓고 교원단체 간, 정직집단 간의 의견이 심화되고 있어 교권이 회복되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 교직관의 변화다.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시절의 교사는 교직을 성직관으로 생각하고, 학생을 교육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직관이 전문직관으로 바뀌면서 'Without Leader' 시대가 오고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훈들리게 됐다.

오늘날에는 교직이 노동직의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사의 권

위가 실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가치관의 변화다. 과거의 학교는 객관적 지식과 전통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사회계층 이동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변화에 의해 전통적 가치관은 디원화된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객관적 지식보다는 주관적·창의적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권이 훈들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자녀를 하나님 낳아 잘 기르고자 하는 오늘의 가정교육은 인성교육 측면에서 빌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정은 인성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부모의 자녀교육 방법은 '자율과 창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자녀들의 '유아적 의존성'만 기르는 잘못된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교육이나 각종 매스컴도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정치집단 간의 갈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보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허위 미투주의 방송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이고, 비교육

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교권 실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교권 실추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에 대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부모는 가정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육적 체계를 통한 도덕성 함양 교육이 이뤄지고, 정치지도자·성인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각종 매스컴이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청소년이 변하고, 교권이 바로서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다.

교권 실추의 원인은 학생인권 강화에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서도 기인했음을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교원·학생·학부모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 교권이 바로 서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받아야 하며, 40세 이상은 비뇨기계 암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 경우와 혈압이 높을 경우에도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측복부의 통증이 자세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 많으며 다낭성 신질환, 통풍성 신질환, 유전성 신질환, 신결핵, 신종양, 신독성 암률 등의 여려 가지 질환이 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까지 저하되지 않으면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시기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신장 질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장은 일단 손상되면 이후 관리를 잘 해도 보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소변을 보기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방광, 전립선, 요도 등 하부요로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애뇨 증상이 있다면 신장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변이 퍼처럼 붉게 나왔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40세 이상은 비뇨기계 암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 경우와 혈압이 높을 경우에도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측복부의 통증이 자세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 많으며 다낭성 신질환, 통풍성 신질환, 유전성 신질환, 신결핵, 신종양, 신독성 암률 등의 여려 가지 질환이 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까지 저하되지 않으면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시기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신장 질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장은 일단 손상되면 이후 관리를 잘 해

도 보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기

능이 저하되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소변을 보기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방광, 전립선, 요도 등 하부요로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애뇨 증상이 있다면 신장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변이 퍼처럼 붉게 나왔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40세 이상은 비뇨기계 암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 경우와 혈압이 높을

경우에도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측복부의

통증이 자세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 많으며 다낭성 신질환,

통풍성 신질환, 유전성 신질환, 신결핵, 신종양,

신독성 암률 등의 여려 가지 질환이 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까지 저하되지

않으면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시기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신장

질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치료시기

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장은 일단 손상되면 이후 관리를 잘 해

도 보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기

능이 저하되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소변을 보기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방광, 전립선, 요도 등 하부요로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애뇨 증상이 있다면 신장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변이 퍼처럼 붉게 나왔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40세 이상은 비뇨기계 암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 경우와 혈압이 높을

경우에도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측복부의

통증이 자세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 많으며 다낭성 신질환,

통풍성 신질환, 유전성 신질환, 신결핵, 신종양,

신독성 암률 등의 여려 가지 질환이 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까지 저하되지

않으면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시기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신장

질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치료시기

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장은 일단 손상되면 이후 관리를 잘 해

도 보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기

능이 저하되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소변을 보기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방광, 전립선, 요도 등 하부요로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애뇨 증상이 있다면 신장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변이 퍼처럼 붉게 나왔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40세 이상은 비뇨기계 암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 경우와 혈압이 높을

경우에도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측복부의

통증이 자세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 많으며 다낭성 신질환,

통풍성 신질환, 유전성 신질환, 신결핵, 신종양,

신독성 암률 등의 여려 가지 질환이 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까지 저하되지

않으면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시기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신장

질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치료시기

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장은 일단 손상되면 이후 관리를 잘 해

도 보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기

능이 저하되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소변을 보기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방광, 전립선, 요도 등 하부요로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애뇨 증상이 있다면 신장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변이 퍼처럼 붉게 나왔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40세 이상은 비뇨기계 암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 경우와 혈압이 높을

경우에도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측복부의

통증이 자세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 많으며 다낭성 신질환,

통풍성 신질환, 유전성 신질환, 신결핵, 신종양,

신독성 암률 등의 여려 가지 질환이 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까지 저하되지

않으면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시기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신장

질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치료시기

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장은 일단 손상되면 이후 관리를 잘 해

도 보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기

능이 저하되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소변을 보기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방광, 전립선, 요도 등 하부요로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애뇨 증상이 있다면 신장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변이 퍼처럼 붉게 나왔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40세 이상은 비뇨기계 암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 경우와 혈압이 높을

경우에도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측복부의

통증이 자세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 많으며 다낭성 신질환,

통풍성 신질환, 유전성 신질환, 신결핵, 신종양,

신독성 암률 등의 여려 가지 질환이 있다.